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21세기 아쇼카 선언-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 종교, 다문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오늘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열린 자세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는 모든 사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때때로 종교 간의 차이가 갈등과 대립을 빚기도 하지만 우리 종교인들은 이를 넘어 조화와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서로 연관된 존재이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웃종교는 나의 종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인연이 엮어내는 다양성이 있는 그대로 세계의 실상이며 아름다움입니다. 연기법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불교가 우리사회의 다원적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이며 이웃종교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바탕입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관용과 열린 자세는 기우너전 3세기 고대 인도의 아쇼카왕이 남긴 새김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 아쇼카왕은 모든 종교의 신자들, 그들이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모두를 존경합니다. 각 종교마다 기본 교리는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느라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이건 자신의 종교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조화가 최선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종교도 발전하게 되고 진리도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불교인은 이 내용을 오늘날 실천해야 할 소중한 가르침으로 되새깁니다. 그동안 불교인은 우리사회 종교 갈등을 해결하고 종교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종교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이웃종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하나의 길임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이 같은 반성과 참회 위에서 불교인은 우리사회 종교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천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직 불교를 통해서만 평화와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모든 믿음에 열려 있습니다. 열린 진리관은 이웃 종교와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한 출발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각 종교마다 고유한 전통과 신앙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한 내 종교의 관점과 언어로 이웃종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종교의 참다움이 더욱 빛납니다. 이웃종교와 우리는 사회적 공동선을 실천하는 동반자이며 서로의 장점을 통해 내 부족함을 채우는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웃종교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그들의 가르침과 장점에 귀 기울이고 배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종교를 선전하기 위해 이웃 종교를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전법은 교세의 확장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웃 종교를 존중하면서 실천하는 모범을 통해 내 믿음의 참됨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없는 감동이 최선입니다. 말로 전하는 일은 가장 나중에,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진리는 주장이 아니라 참된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 믿음을 전하기 위해 공적 지위나 권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절차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어떤 종교도 믿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영역의 종교 활동은 민주적 이념과 시민적 상식에 부합해야 합니다. 공적 권력이 신앙의 수단이 되거나 공공장소가 신앙 전파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신앙이 공적 영역에 작용해 종교 편향을 낳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종교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중립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떤 갈등과 분쟁의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평화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비폭력은 불교가 지향하는 가치관이자 실천윤리입니다. 행동만 아니라 말과 마음도 비폭력적이어야 합니다. 분쟁과 갈등의 과정에서도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관용과 평화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분쟁과 갈등의 해결이라는 목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수단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불교인은 다음과 같은 입장과 실천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관용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종교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원을 세웁니다.

□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의 서원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얻고자 하듯이 이웃종교인들도 그들이 믿는 종교를 통해 평화와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르고자 원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종교의 가르침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내종교의 관점과 언어로 이웃종교를 판단하지 않고 겸허하게 그들의 입장과 언어로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까지도 존중 하겠습니다.

이웃종교인과 더불어 고통 받고 소외된 모든 생명들을 위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구촌 곳곳의 가난과 질병을 퇴치하고 전쟁과 폭력을 방지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아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